

보 도 설 명 자 료

('17. 12. 15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전력수요 전망 확 낮춰 탈원전 옹호” 지적도(12.15, 매일경제 등)

1. 기사내용

-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'30년 국내 전기차가 100만대로 늘어날 것을 가정해 0.3GW를 반영한 것 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력수요 미반영
 -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배제한 ‘반쪽짜리’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옴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8차 수급계획 수요소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했으나, 수치로 산정하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최종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음
 - 분석 결과, 아예 없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전력수요 증가 효과와 감소효과가 모두 발생하지만, 전체적으로 수요 감소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결론이 도출됨
 - 증가요인 : IoT, 데이터센터, 전기차 등 개별기기의 보급 확산
 - 감소요인 : 스마트홈·빌딩·공장, 지능형 전력망 등 시스템 효율화
- 다만, 전기차와 같이 정부의 보급계획이 발표되고, 이에 따라 전력수요 수치 산정이 가능한 요인은 8차 계획에 반영하였음
 - 7차 계획 수립 당시 전기차 효과가 불확실성이 높아 포함되지 못하였다가 금번 8차 계획에 반영된 것처럼,
 - AI(인공지능), 빅데이터 등도 향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 영향을 검토하여 차기 수급계획에서는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
이상은 서기관 (044-203-5241)